

스마트 기술로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높인다

광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하〉 재생에너지 거점센터, 환경교통 서비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RE100 등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추세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수반이 필수적이다.



서석동에 'RE100 메가스테이션' 재생에너지 생산·충전·거래 서비스 지자체 최초 에너지 거점센터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 설치 센터·음성안내 스마트 횡단보도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홍보부스·SNS채널·서포터즈 운영 '스마트도시 광주' 알리기 주력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5월 착공하는 'RE100 메가스테이션(MEGA Station)'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충전·거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자 지자체 최초의 에너지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광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역점사항 중 하나인 'RE100 메가스테이션(MEGA Station)' 센터는 대지면적 1,250.66㎡(378.32평), 연면적 566.07㎡(171.24평), 지상 3층 규모로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1층에는 전기차 충전 공간, 2층은 스마트기술 창업 기관과 연계해 창업지원, 인력양성, 솔루션 개발 등 실증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혁신성장공간이 들어선다. 3층의 전력거래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 수요자 간의 직접 전력 거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탄소배출권 거래 모니터링, 공공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City-EMS(Energy Management System)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RE100 메가스테이션은 건물 자체도 미래형 제로에너지 스마트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건축물에 부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등급 인증 획득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일부 외벽의 마감재료를 컬러 태양광 패널로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교통(Mobility), 에너지(Energy), 환경(Green), 안전(AI) 등 4대 MEGA 서비스 중 2024년 올해에는 교통과 환경 서비스 구현이 본격화된다. 교통 서비스 일환으로 동구 내 상업지구 26개소 주차장에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도입해 실시간 주차정보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한다.

스마트주차 서비스는 이용 효율성을 5% 정도 개선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EV) 급속 충전기는 올해 6월까지 동구청 주차장, 남광주시장 주차장 등 동구 관내 공영주차장 14개소에 충전기 설치공사를 마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경 서비스로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가 동구 내 13곳에 설치된다. 지능형 자원순환 수

거기는 수거기 투입구에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AI기술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거하고 수거량 모니터링까지 해준다. 참여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지난해 10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홍보부스에서 처음 체험행사로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밖에 안전 서비스 중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올 6월까지 동구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스쿨존 또는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8개소에 설치가 마무리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센서 기술과 음성안내 기술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전 시스템이다.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는 운전행태 43.68점(55점 만점), 보행행태 16.67점(20점 만점), 교통안전 13.57점(25점 만점) 등 총점 73.91점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교통 안전도가 취약한 동구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보행자, 교통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에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비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인 RE100 메가스테이션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충전·거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지자체 최초의 에너지 거점 센터다. RE100 메가스테이션 조감도.

와 인프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를 비롯해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채널과 시민서포터즈 운영으로 스마트도시 광주를 알리기에 주력한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참가하는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 세계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그려나가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이다. 지난해 9월 개최된 'WSCE 2023'은 국내외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콘퍼런스 및 부대행사, G2G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24년 올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본격 가동돼 동구 구도심의 생활안전, 교통불편, 도시환경 등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광주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및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에서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시 근본적 변화...통합 스마트시티 조성

광주시·동구청·도시공사, 올해까지 240억원 지원
한화시스템컨소시엄, 기술 노하우·솔루션 등 투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통합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 도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허브와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 4개 분야 9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 성과목표 달성확산,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 참여 협력 등이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시는 동구청,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20억원, 시비 120억원 등 모두 240억원을 지원하고 한화시스템컨소시엄은

기업의 기술 노하우와 솔루션 등 민자 43억원의 현물을 투자, 민·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완성도 높은 스마트 도시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생산·충전·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페트(PET),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2022년 광주시, 동구청,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12개 기관은 광주시의 지역거점 스마트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